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학업 성취도 및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

Congruence of Parents and Children's Beliefs : Relationships to Academic Achievement and Perceived Competence

전 경 숙**
Jeun, Kyung 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beliefs of parents and children, children's cognitive and emotional behavior based on cognitive and interreactionary approach models.

The Subjects were 138 children (68 eight-year-olds and 70 eleven-year-olds) and their parents.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modified Family Belief Interview Schedule(Alessandri & Wozniak, 1987), the Standard Achievement Test, and Harter's Perceived Competence Scale.

Data analysis was by Pearson's r product moment correlation, two-way ANOVA, Fisher-Z test and Student-Newman-Keuls post-hoc test.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The beliefs of parents and children has a significant influence children's perception of competence.
- (2) The congruence of parents' and children's beliefs was highest in "assumed similarity".
- (3) Mother's positive view of their children and congruence of mother's and father's beliefs were correlated with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Parents' positive beliefs and congruence of beliefs were also correlated with children's self-perception of competence.

I. 서 론

부모-아동 관계 연구에서 부모의 신념(belief)이나 가치(value)등과 같은 인지적 요소가 아동 행동의 인과적 요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이었다(McGillicuddy-De Lisi, 1982; Sigel 등, 1980). 이전에는 신념, 가치 등과 같은 개념은 측정하기

도 힘들고 확인할 수 없는 가설적 구성개념(hypothetical construct)으로 받아들여져 이들은 부모-아동관계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등장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부모-아동관계 연구에서 신념이 주요 변인으로 등장하도록 계기를 제공한 연구로는 Sigel(1985)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Sigel은 그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27개의 신념 유형을 밝혔다. 종래의 부모-아동 관

* 본 논문은 1992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계 연구는 아동의 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이나 변인들의 추출이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나 Sigel의 신념에 관한 연구의 등장 이후 아동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인과적 변인으로 신념을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신념은 단순한 부모의 아동에 대한 정의적 태세나 가치지향적 성격보다 오히려 아동에 대한 객관적, 실제적, 인지적 파악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신념은 비교적 안정된 부모의 사고형태의 하나로서 아동의 인지적 행동이나 정의적 행동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하겠다.

부모가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해서 어떤 종류의 신념을 갖고 있는냐가 바로 부모의 아동양육 실제에 영향을 줄 것이고 바로 아동의 인지발달이나 인성발달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부모가 아동에 관한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신념을 바르게 교정하는 부모교육의 과정을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아동의 성장 및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부모-아동간의 신념 및 신념들의 일치도가 자녀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의 부모-아동관계 연구의 새로운 연구모형인 인지적 접근과 상호작용적인 접근모형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전반적 설계는 Sigel(1985)이 제안한 부모-자녀관계 연구에서의 신념-행동 패러다임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에서 규명될 연구문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신념과 아동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아동간의 신념 일치도와 아동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인 아동의 학업성취도 및 자기능력지각과의 관

계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아동의 신념과 아동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간에는 관계가 있는가?

1-1. 부·모·아동의 신념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2. 부·모·아동의 신념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학업성취도 및 자기능력 지각과 관계가 있는가?

1-3. 부·모·아동의 신념이 높고 낮음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학업성취도 및 자기능력지각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아동간의 신념 일치도와 아동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간에는 관계가 있는가?

2-1. 부모-아동간의 신념 일치도 유형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2. 부모-아동간의 신념 일치도 유형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학업성취도 및 자기능력지각에서 관계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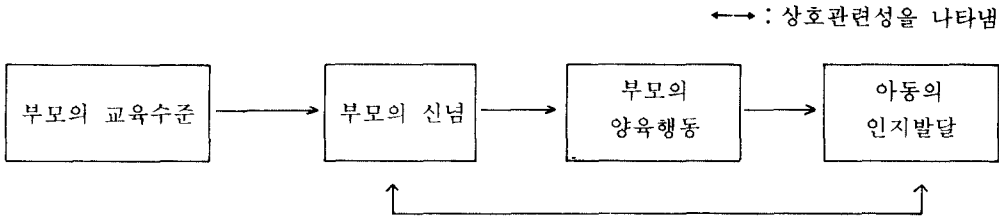
2-3. 부모-아동간의 신념 일치도가 높고 낮음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학업성취도 및 자기능력지각에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신념 및 신념 일치도와 아동의 인지발달과의 관계

부모의 신념과 아동의 인지발달과의 관계에 관한 대표적 연구의 하나로 McGillicuddy-De Lisi (198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의 연구는 부모의 신념을 종래의 부모-아동 관계연구에서 채택하여온 부모양육행동 변인보다 아동의 인지행동에 있어서 인과적 설명(casual explanation)의 가정하에 수행되었다. 그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채택한 부모신념과 아동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가설

적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McGillicudy-De Lisi의 부모신념과 아동행동과의 관계 모형

McGillicudy-De Lisi는 위의 <그림 1>의 가설 모형에 입각하여 122명의 부모와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부모의 신념은 유치원 아동의 표상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부모의 신념에 부모의 학력 및 아동의 행동 결과가 중개변인으로 부모의 신념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혔다. 무엇보다 McGillicudy-De Lisi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부모-아동 관계 연구에서 부모의 신념이 아동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확인한 점이고, 특히 이 변인은 아동의 인지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Sigel(1979, 1981)은 그의 연구를 통해 부모가 아동을 능동적, 활동적인 존재라는 신념을 갖고 있을때 자녀의 인지적 표상수준을 신장시키는 아동교육방법을 채택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부모가 아동을 수동적 존재라는 신념을 갖고 있을때 자녀의 표상능력을 자극하는 교육방법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Sigel, McGillicuddy-De Lisi, Fluaghser 그리고 Rock(1983)은 부모의 신념, 부모의 양육행동 그리고 자녀의 인지행동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부모와 아동의 행동간에 상호적 관계가 나

타났는데, 즉 지적인 능력이 낮은 아동일수록 그 부모들은 낮은 인지적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었고, 지적인 아동일수록 그 부모들은 높은 인지 교수책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아동의 지적 수준은 부모가 어떠한 표상전략(distancing strategies)을 사용하게 될 것인지에 영향을 주게 된다(p. 89).”

이처럼 Sigel은 부모-자녀 관계는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전제하에 부모가 아동에 대해 갖는 신념은 자녀의 양육방법에 영향을 주며, 이 영향은 자녀의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었다.

Hunt(1980)의 match hypothesis 대한 대안적 설명으로 Hunt 및 Paraskevopoulos(1980), 그리고 Miller(1986) 등은 후속적인 연구를 통해 아동의 능력이 오히려 부모의 아동에 대한 신념 및 양육방법에 변화를 준다고 시사하였다. 즉 높은 지적 능력의 아동은 낮은 지적 능력의 아동보다 부모에게 더 분명한 판단적 단서를 제공하기 쉬우므로, 부모와 아동의 행동간에 관계가 있다면 이는 부모의 양육실제보다 아동의 능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아동에서 부모의 영향모델(child-to-parent model)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

처럼 부모-아동의 관계는 상호적 관계의 맥락하에서 파악되어야 함을 말하여 주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는데에 부모의 개인적, 심리적 특성, 생각이 가미되어 간직하고 있는 사상을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한 신념 및 가치관이라고 할때,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지, 어떤 형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지에 대한 이러한 신념들은 생활에서 자녀를 대하는 구체적 행동양식으로 표현되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부모가 지닌 신념에 따라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달라지며, 부모의 기대가 다름에 따라 자녀의 발달을 지원해주는 방향이 달라지며 그 결과 아동의 발달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볼때, 부모간, 부모-아동간의 신념과 그 일치도는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인지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신념 및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의 관계

초기의 학자들은 부모-아동 관계가 아동의 자기확신이나 자기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Erikson, 1963). Kohn(1969)는 부와 모의 신념이나 가치가 상이하면 아동의 자아정체감 형성이나 자아의식 형성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이종승과 오성심(1982)은 아동이 부모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 아동의 자아개념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실증적 연구로 확인하였다. 즉, 아동은 타인에 의해 인정을 받게 되면 적응을 잘 하며 자신의 판단대로 확신을 세우며 새로운 표현을 하게 된다. 반면에 아동이 부모 행동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면 아동의 자아개념은 낮게 나타난다. 이때 아동은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이러한 생각에 일치된 행동을 함으로써 성취영역의 하나인

학업활동에 부진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Parsons, Adler, 그리고 Kaczala(1982) 등은 아동의 학문적 태도와 부모의 영향에 관해 5-11학년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얻어진 결과는 부모간에, 아동의 성에 따라 아동의 수학적 성취에 대한 기대가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딸을 가진 부모는 아들을 가진 부모보다 수학에서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각하는 반면에 아들을 가진 부모는 딸을 가진 부모보다 아들의 수학적 성취를 실제의 수학점수보다 더 좋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동의 능력을 지각하는데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곧바로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Stipek와 Iver(1989)는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평가에 관한 발달적 변화라는 연구를 통해 아동은 자기능력을 평가하는 수준이 어릴수록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특히, 6-7학년에서부터 현저하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Nicholls(1978) 등은 국민학교 2-3학년 이전단계에 아동이 자기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어린 아동들은 자기능력 평가시에 주어진 수행과제의 난이도를 바르게 인식함 없이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지각하게 되어 실제의 자기능력보다 과대하게 자기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Harter의 자기능력 지각 척도를 2학년 이후부터 적용한 이유도 바로 이 연구자료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Graybill(1978)은 자율적 양육 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일치할수록 자녀의 자존감은 높아지며, 특수한 상황에서의 규율에 다소 융통성을 허용하면서 부모간의 양육 행동이 일치한다고 자녀

에게 인지될 때, 자녀의 자존감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부모-아동간의 의견의 일치도,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포부수준, 자녀의 연령 등의 변인들이 자녀의 자기능력지각이나 자아개념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아동에 대한 기대수준 또는 부모간의 양육태도간의 일관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의 자아개념과 같은 자아의식 형성에 관해 연구하여 왔다. 부모들의 신념체계 또는 부모-아동간의 신념들간의 일치도를 주요 변인으로 삼아 자녀의 자아개념, 자기존중감, 자기능력지각 등에 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아동간의 신념의

일치도 여부가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한 확인은 부모-아동 관계 연구에서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및 자아개념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인과적 변인으로서 부·모·아동의 신념의 중요성 또는 부모와 아동간의 신념 일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 시내에 위치한 양쪽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국민학교 2학년과 5학년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동들이다. 이들 중 부모용과 아동용 가족신념면접 검사를 모두 받고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특 성		연 령		전 체	
		8 세	11 세	N	%
성 별	남 아	29	34	63	45.7
	여 아	39	36	75	54.3
	합 계	68	70	138	100.0
형 제 수	1 명 (외동아)	3	3	6	4.3
	2 명	45	45	90	65.2
	3 명	17	17	34	24.6
	4 명	2	4	6	4.3
	5 명 이 상	1	1	2	1.4
	합 계	68	70	138	100.0
출생순위	첫 째 (만 이)	38	36	74	53.6
	중 간	8	12	20	14.5
	막 내	19	20	39	28.3
	독자·무남독녀	3	2	5	3.6
	합 계	68	70	138	100.0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중복되지 않은 가정만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확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최종 대상자는 138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아동으로 총 414명이었다. 이들 연구대상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아버지, 어머니 생략).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채택한 주요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신념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가족간의 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Alessandri와 Wozniak (1987a)이 개발해 사용한 바 있는 가족신념면접 척도 (Family Belief Interview Schedule)를 본 연구자가 우리나라의 상황과 실정에 적합하도록 번안·수정·보완하여 제작하였다.

가족신념면접 척도(FBIS)는 아동에 대한 가족간의 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항의 내용은 아동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을 설정하고 있다.

이 가족신념면접 척도로 어머니, 아버지, 아동 신념, 아동예측 어머니 신념, 아동예측 아버지 신념의 다섯 가지 신념을 일차적으로 조사하였고, 위의 다섯 가지 신념들에 기초하여 신념들간의 일치도 유형을 조합하였다. 이 신념 일치도의 산출근거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가족신념면접 척도 각 문항마다 가족들의 반응에 따라 신념의 바람직한 정도를 3단계로 평점하였는데(1점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의 신념 점수, 3점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의 신념 점수, 2점은 분명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은 신념 점수), Cashmore와 Goodnow(1985, p. 498)의 신념 일치도 평점방식

에 따라 각 문항마다 3점 신념에 평점된 것끼리 짝을 지워 신념 일치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부모와 아동의 답변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답변을 분석하고 또 다른 보조자가 다시 한번 답변을 분석하였는 바 분석자간의 분석일치율은 97%였다. Cashmore와 Goodnow(1985)와 Alessandri와 Wozniak(1987a)의 세 가지 신념 일치도 유형에 따라 8가지 신념 일치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적인 일치도(basic agreement)

첫째, 어머니의 신념과 아버지의 신념간의 일치도(Parental Agreement: PA)

둘째, 어머니의 신념과 아동자신의 신념간의 일치도(Mother Congruence: MC)

셋째, 아버지의 신념과 아동자신의 신념간의 일치도(Father Congruence: FC)

나. 예측의 정확성(accuracy of prediction)

넷째, 어머니의 신념과 아동이 예측한 어머니의 신념간의 일치도(Child's Accuracy-Mother: CAM)

다섯째, 아버지의 신념과 아동이 예측한 아버지의 신념간의 일치도(Child's Accuracy-Father: CAF)

다. 유사성 추측(assumed similarity)

여섯째, 아동자신의 신념과 아동이 예측한 어머니의 신념간의 일치도(Child's Assumed Similarity-Mother: CASM)

일곱째, 아동자신의 신념과 아동이 예측한 아버지의 신념간의 일치도(Child's Assumed Similarity-Father: CASF)

여덟째, 아동이 예측한 어머니의 신념과 아동

이 예측한 아버지의 신념간의 일치도(Child's Assumed Parental Consistency: CAPC)

2) 아동의 학업 성취도 측정 도구

아동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 T. C에서 제작된 표준화 학력고사 2학년용과 5학년용을 실시하였는데, 표준화 학력고사의 국어, 산수, 사회, 자연의 T점수를 사용하였다.

3) 아동의 자기 능력 지각 측정도구

Harter(1982)에 의해 고안된 자기능력지각 척도(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는 아동의 지각된 능력과 일반적인 자기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아동이 4가지 영역 즉, 인지능력의 지각, 사회적 능력의 지각, 신체적 능력의 지각, 그리고 일반적 자아지각 등으로 구성되었다.

Harter가 제안한 이 양자택일적인 선택구조의 질문 양식의 효율성은 세상의 어린이 중 절반은 자신을 어떤 한 방법으로 보는 반면에, 나머지 절반의 아동은 그 반대되는 방법으로 자신을 본다는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각 항목은 1-4점까지 점수가 매겨져 있으며, 1점은 낮은 지각된 능력을, 4점은 높은 지각된 능력을 의미한다.

본 검사의 내적 합치도 계수 α 는 .88이었으며, 하위영역별 내적합치도계수는 .72에서 .80로 나타났다. 또한 검사총점과 각 문항과의 상관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42에서 .69로 나타나 대부분의 문항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과 하위영역에 속한 문항과의 상관은 .49에서 .84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0.1%의 유의도 수준에서 문항반응의 안정성을 보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연구문제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처리하였는데,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하위 연구문제에 따라 이원변량분석, 적률상관계수, Fisher-Z 검증, 사후검사로 Student-Newman-Keuls 검증 등을 이용한 분석을 하였다.

IV. 결 과

1. 연구문제 1의 분석결과

1) 연구문제 1-1의 결과

부, 모, 아동의 신념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 모, 아동 신

〈표 2〉 아동의 연령에 따른 부, 모, 아동 신념의 비교

신념 구분	8 세 (N=68)		11 세 (N= 70)		전 체 (N=138)		F
	M	SD	M	SD	M	SD	
어 머 니	31.54	3.28	32.10	3.98	31.83	3.65	.80
아 버 지	32.38	3.47	32.79	4.04	32.59	3.76	.40
아동 자신	35.66	3.30	33.00	4.24	34.30	4.02	16.71***
아동이 예측한 어머니	36.56	3.25	35.30	3.90	35.92	3.59	4.23*
아동이 예측한 아버지	36.31	3.25	35.66	4.38	35.98	3.86	.98

* p<.05 *** p<.001

념의 기술적인 통계치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아버지, 어머니, 아동간의 신념에 있어서 유의
 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연

령과 가족구성원(아버지, 어머니, 아동자신)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신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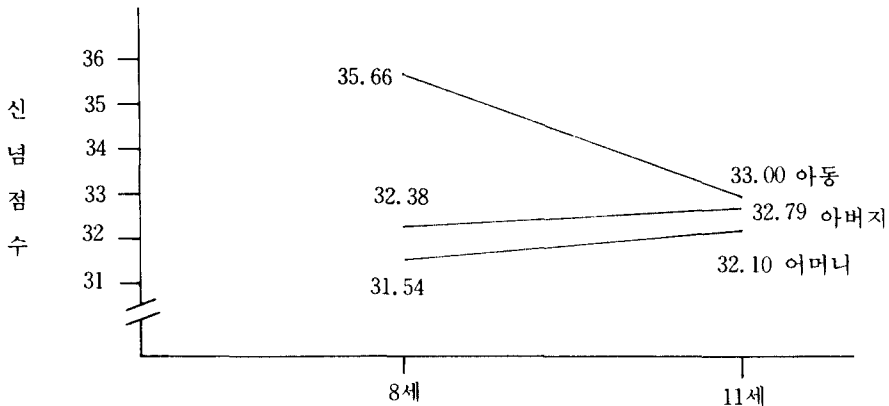
<표 3> 아동의 연령과 가족구성원에 따른 신념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Source	df	MS	SS	F
연 령	1	23.67	23.67	1.698
가족구성원	2	222.41	444.83	15.950***
연령×가족구성원	2	127.75	255.49	9.161***
오 차	408	13.94	5689.33	
전 체	413	15.53	6413.33	

*** $p < .001$

<표 3>에 의하면 연령에 대한 주효과는 없으나
 가족구성원에 대한 주효과는 있었으며, 특히 연
 령과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
 다. 이 상호작용 효과는 다음에 제시된 <그림 2>
 에서 보여 주듯이 아동자신과 아버지 또는 어머
 니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어머
 니, 아버지간에는 신념의 차이가 없으나 연령에
 관계없이 8세 아동에서나 11세 아동에서 어머니

와 아동, 아버지와 아동 간의 신념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 < .01$). 또한 11세 아동의 경우 신념
 이 어머니나 아버지의 신념과 많은 차이를 보이
 지 않으나, 8세 아동의 경우 어머니나 아버지보
 다 아동의 신념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
 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SNK(Student-Newman-
 Keuls) 사후검증결과($p < .01$)가 뒷받침한다.



<그림 2> 연령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신념의 상호작용 효과

2) 연구문제 1-2의 결과
5가지 부, 모, 아동의 신념(어머니, 아버지, 아동, 아동예측 어머니, 아동예측 아버지)과 아동

의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연령별로 이들 상호간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여 도표로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부, 모, 아동 신념과 아동의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계수

신념구분	8세(N=68)	11세(N=70)	전체(N=138)
어머니	.29**	.23*	.25**
아버지	.33**	-.04	.12
아동자신	.19	-.10	.04
아동이 예측한 어머니	-.13	.18	.05
아동이 예측한 아버지	-.05	.04	.01

* $p < .05$, ** $p < .01$

<표 4>에 의하면 어머니의 신념은 연령에 관계없이 8세와 11세 아동의 경우 1% 또는 5% 유의 수준에서 학업성취도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의 신념이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또 아버지 신념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나 8세 아동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신념이 높은 아동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신념과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가 연령

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Fisher-Z 검증을 한 결과 연령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5가지 부, 모, 아동신념(어머니, 아버지, 아동, 아동예측 어머니, 아동예측 아버지)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연령별로 이들 상호간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여 도표로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부, 모, 아동 신념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의 상관계수

신념구분	8세(N=68)	11세(N=70)	전체(N=138)
어머니	.27*	.29**	.26**
아버지	.19	.15	.16
아동자신	.35**	.32**	.35***
아동이 예측한 어머니	.27*	.35**	.32***
아동이 예측한 아버지	.22*	.35**	.29***

* $p < .05$, ** $p < .01$, *** $p < .001$

〈표 5〉에 의하면 부, 모, 아동 신념은 아버지의 신념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령에 관계없이 1% 또는 5%의 유의도 수준에서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아동간 신념이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부모-아동 신념과 아동의 자기 능력지각과의 상관에서 Fisher-Z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연구문제 1-3의 결과

부, 모, 아동의 집단내 평균을 중심으로 한 신

념의 높고 낮음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학업성취도 및 자기능력지각은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5가지 신념이 각각 높고/낮은 집단과 아동의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대부분 부, 모, 아동 신념의 높고 낮음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 신념의 경우, 신념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이원변량분석으로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아동의 연령과 부, 모, 아동 신념의 높고 낮음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변량분석 결과

신념구분	Source	df	MS	SS	F
어머니	연령	1	6.48	6.48	.267
	신념	1	106.90	106.90	4.400*
	연령×신념	1	3.58	3.58	.147
	오차	134	24.30	3255.72	
아버지	연령	1	13.76	13.76	.557
	신념	1	42.23	42.23	1.709
	연령×신념	1	13.09	13.09	.530
	오차	134	24.71	3310.88	
아동자신	연령	1	9.71	9.71	.391
	신념	1	.26	.26	.011
	연령×신념	1	41.22	41.22	1.661
	오차	134	24.81	3324.72	
아동이 예측한 어머니	연령	1	10.43	10.43	.417
	신념	1	2.53	2.53	.101
	연령×신념	1	7.58	7.58	.302
	오차	134	25.05	3356.09	
아동이 예측한 아버지	연령	1	10.00	10.00	.398
	신념	1	2.13	2.13	.085
	연령×신념	1	.04	.04	.001
	오차	134	25.11	3364.03	
	전체	137	26.64	3376.19	

* p<.05

〈표 6〉에 의하면 연령에 의한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 모, 아동 신념의 주효과는 어머니 신념의 경우에만 나타났다. 즉, 연령에 관계없이 어머니 신념이 높은 아동이 어머니 신념이 낮은 아동보다 학업성취도가 5%의 유의도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F=4.40$, $df=1,134$, $p<.05$). 그리고 아동의 연령과 부, 모, 아동 신념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한편 〈부, 모, 아동 신념의 높고 낮음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5가지 부, 모, 아동 신념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분류한 높은/낮은 집

단과 아동의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념의 높고 낮음에 따라, 또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인 경향으로는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 모, 아동 신념이 강할수록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현상이 실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아동의 연령과 부, 모, 아동 신념의 높고 낮음에 따른 자기능력지각 변량분석 결과

신념구분	Source	df	MS	SS	F
어머니	연령	1	496.84	496.84	3.002
	신념	1	273.72	273.72	1.654
	연령×신념	1	2.18	2.18	.013
	오차	134	165.52	22178.57	
아버지	연령	1	381.70	381.70	2.334
	신념	1	538.40	538.40	3.292
	연령×신념	1	.05	.05	.000
	오차	134	163.56	21917.02	
아동자신	연령	1	308.06	308.06	2.056
	신념	1	2169.17	2848.91	14.479***
	연령×신념	1	211.64	211.64	1.413
	오차	134	149.81	20074.65	
아동이 예측한 어머니	연령	1	342.53	342.53	2.341
	신념	1	2848.91	2848.91	19.475***
	연령×신념	1	4.30	4.30	.029
	오차	134	146.29	19602.25	
아동이 예측한 아버지	연령	1	436.89	436.89	2.749
	신념	1	935.09	935.09	5.883*
	연령×신념	1	221.44	221.44	1.393
	오차	134	158.95	21298.93	
	전체	137	167.11	22893.97	

* $p<.05$, *** $p<.001$

〈표 7〉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연령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와 아버지 신념의 경우 역시 신념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념의 높고 낮음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아동자신, 아동이 예측한 어머니, 아동이 예측한 아버지 신념의 경우는, 신념의 높고 낮음에 따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1% 또는 5%의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의 연령과 부, 모, 아동 신념

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

부모-아동간의 신념일치도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먼저 부모-아동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8가지 신념 일치도를 조사하여 이의 평균 백분율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남아와 여아의 신념일치도 평균 백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를 연령별로만 합산하여 비교한 도표는 〈표 8〉과 같다.

〈표 8〉 아동의 연령에 따른 부모-아동간 신념일치도의 비교

신념일치도 구분	8세 (N=68)		11세 (N=70)		전체 (N=138)		F
	M	SD	M	SD	M	SD	
(1) 어머니-아버지	35.88	11.80	37.14	13.55	36.52	12.72	.34
(2) 어머니-아동	39.62	13.71	34.95	13.31	37.29	13.66	3.85
(3) 아버지-아동	39.90	13.06	36.29	13.46	38.10	13.34	2.61
(4) 어머니-예측어머니	39.62	13.28	40.95	12.91	40.29	13.06	.36
(5) 아버지-예측아버지	39.81	12.74	39.43	14.07	39.62	13.38	.03
(6) 아동-예측어머니	58.86	13.19	46.29	15.05	52.57	15.45	27.63***
(7) 아동-예측아버지	57.62	14.45	46.29	16.67	52.95	16.30	19.13***
(8) 예측아버지-예측어머니	59.14	14.31	52.86	15.41	56.00	15.15	6.25*

* p<.05, ** p<.01, *** p<.001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아동 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신념일치도는 아동이 예측한 아버지와 아동이 예측한 어머니간의 신념일치도로 평균백분율이 56.00%이며, 가장 낮은 경우는 어머니-아버지의 신념이 일치하는 경우로 평균백분율이 36.52%였다. 대체로 아동의 신념과 아동이 예측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신념간 일치도가 부모-예측부모간의 일치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아버지 또

는 어머니의 신념보다 아동이 자신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신념을 갖는 경향때문으로 여겨진다.

부모-아동간에 나타나는 신념일치도의 연령간 차이를 살펴보면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8세의 아동들이 11세의 아동들에 비하여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신념에 대한 예측을 보다 아동중심적으로 아동자신과 비슷하게 하였고(아동-아동이 예측한 어머니 : F=27.63, df=1,136, p<.

001: 아동-아동이 예측한 아버지 : $F=19.13$, $df=1, 136$, $p<.001$; 아동이 예측한 어머니-아동이 예측한 아버지 : $F=6.25$, $df=1, 136$, $p<.05$), 어린 아동일수록 부모와의 신념일치도가 높은 경향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F=3.85$, $df=1, 136$, $p>.05$).

여기에서 제시된 8가지 신념 일치도를 3가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 세가지 신념일치도 유형의 평균백분율과 표준편차를 아동의 연령별로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아동의 연령에 따른 부모-아동간 신념일치도 유형의 비교

신념일치도 유형	8세 (N=68)		11세 (N=70)		전체 (N=138)		F
	M	SD	M	SD	M	SD	
기본적 신념일치	38.44	11.25	36.13	11.60	37.29	11.43	1.44
예측의 정확성	39.71	11.03	40.19	11.66	39.95	11.31	.06
유사성의 추측	58.54	13.00	48.48	13.93	53.54	14.34	19.54***

*** $p<.001$

<표 9>에 제시된 것처럼 부모-아동간의 신념 일치도 유형은 유사성을 추측하는 유형(53.54%)이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세 아동이 11세 아동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일치도를 보였는데($F=19.54$, $df=1$,

136, $p<.001$), 이는 어린 아동일수록 아버지의 신념이나 어머니의 신념을 예측함에 있어서 아동 자신의 신념과 비슷하게 예측하거나, 아버지의 신념과 어머니의 신념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비슷하게 예측하는 경향때문으로 보인다.

<표 10> 부모-아동간 신념일치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계수

신념 일치도 구분	8세 (N=68)	11세 (N=70)	전체 (N=138)
(1) 어머니-아버지	.29**	.17	.22**
(2) 어머니-아동	.27*	.08	.18*
(3) 아버지-아동	.30**	-.09	.10
(4) 어머니-예측어머니	.20	.17	.18*
(5) 아버지-예측아버지	.27*	-.07	.09
(6) 아동-예측어머니	-.03	-.00	.01
(7) 아동-예측아버지	.05	.05	.02
(8) 예측아버지-예측어머니	-.12	.15	.03

* $p<.05$, ** $p<.01$

3) 연구문제 2-2의 결과

부모-아동간의 신념일치도 유형은 아동의 학업성취도 및 자기능력지각과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8가지 부모-아동간의 신념일치도를 아동의 연령에 따라 학업성취도와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부모-아동간 신념일치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와는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아동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11세 아동의 경우 모든 부모-아동간의 신념일치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와는 유의한 상

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세 아동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념이 일치할수록,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신념과 아동의 신념이 일치할수록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아동간의 신념일치도 유형은 자기능력지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아동간 신념일치도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의 상관계수를 아동의 연령별로 산출하여 제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아동의 연령에 따른 부모-아동간 신념일치도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의 상관계수

신념 일치도 구분	8세 (N=68)	11세 (N=70)	전체 (N=138)
(1) 어머니-아버지	.21*	.26*	.22**
(2) 어머니-아동	.35***	.31**	.34***
(3) 아버지-아동	.29**	.33**	.32***
(4) 어머니-예측어머니	.37**	.34**	.34***
(5) 아버지-예측아버지	.28*	.35**	.31***
(6) 아동-예측어머니	.36**	.34**	.37***
(7) 아동-예측아버지	.43***	.34**	.40***
(8) 예측아버지-예측어머니	.33**	.46***	.41***

* p<.05, ** p<.01, *** p<.001

<표 11>에 의하면 부모-아동간의 신념일치도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는 연령에 관계없이 1%의 유의도 수준에서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아동간의 신념일치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능력지각도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sher-Z 검증결과 연령간 상관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다.

3) 연구문제 2-3의 결과

부모-아동간 신념일치도의 높은집단/낮은집

단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학업성취도 및 자기능력지각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8가지 부모-아동간 신념일치도에 따라 각각 평균을 중심으로 높은/낮은집단으로 나눈 뒤, 이 신념일치도가 높은/낮은 집단과 아동의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념일치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어머니-아버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집단간에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실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
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
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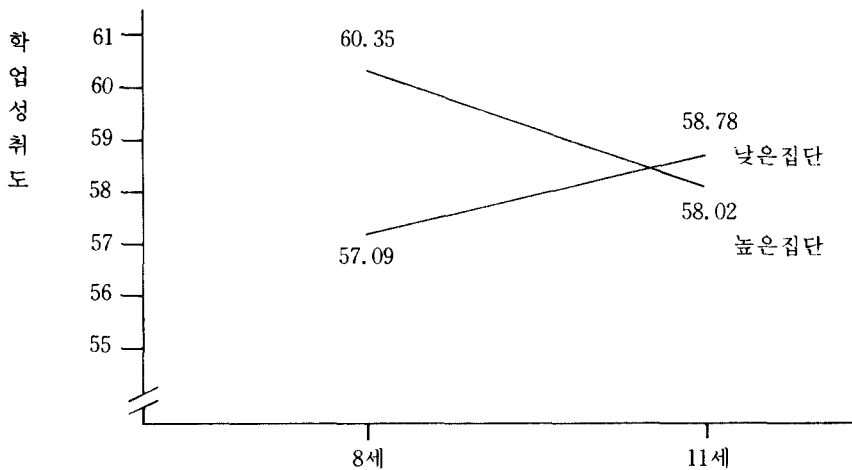
<표 12> 아동의 연령과 부모-아동간 신념일치도의 높고 낮음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변량분석결과

신념일치도 구분	Source	df	MS	SS	F
(1) 어머니-아버지	연령	1	10.98	10.98	.452
	신념일치도	1	108.21	108.21	4.453*
	연령×일치도	1	1.32	1.32	.054
	오차	134	24.30	3256.67	
(2) 어머니-아동	연령	1	7.73	7.73	.294
	신념일치도	1	38.48	38.48	1.550
	연령×일치도	1	1.05	1.05	.042
	오차	134	24.83	3326.68	
(3) 아버지-아동	연령	1	5.90	5.90	.249
	신념일치도	1	49.11	49.11	2.07
	연령×일치도	1	137.51	137.51	5.795*
	오차	134	23.73	3179.58	
(4) 어머니-예측어머니	연령	1	4.96	4.96	.203
	신념일치도	1	82.64	82.64	3.373
	연령×일치도	1	.62	.62	.025
	오차	134	24.50	3282.94	
(5) 아버지-예측아버지	연령	1	15.32	15.32	.636
	신념일치도	1	44.97	44.97	1.866
	연령×일치도	1	91.52	91.52	3.797
	오차	134	24.10	3229.72	
(6) 아동-예측어머니	연령	1	9.96	9.96	.397
	신념일치도	1	.00	.00	.999
	연령×일치도	1	.21	.21	.085
	오차	134	25.14	3364.07	
(7) 아동-예측아버지	연령	1	13.87	13.87	.560
	신념일치도	1	02.48	20.48	.828
	연령×일치도	1	29.54	29.54	1.194
	오차	134	24.75	3316.18	
(8) 예측아버지-예측어머니	연령	1	10.33	10.33	.418
	신념일치도	1	4.01	4.01	.162
	연령×일치도	1	51.91	51.91	.150
	오차	134	24.70	3310.28	
	전체	137	24.64	3376.19	

* p<.05

〈표 12〉에 의하면 어느 경우에서도 5%의 수준에서 유의한 연령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5%의 유의도 수준에서 어머니-아버지 신념일치도의 주효과가 나타나, 신념일치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F=4.453, df=1,134, p<.05$). 즉, 어머니-아버지 신념일치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이다. 또 아버지-

아동 신념일치도의 경우 연령이나 신념일치도의 높고 낮음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과 신념일치도간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F=5.795, df=1,134, p<.05$) 8세 아동의 경우 아버지-아동 신념일치도가 높은 아동이, 11세 경우에는 신념일치도가 낮은 아동이 다소간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아버지-아동 신념일치도와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다른한편 〈부모-아동간 신념일치도의 높고 낮음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8가지 신념일치도가 각각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아동의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기능력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념일치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부모-아동관계에서 발생하는 신념일치도가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보다 자기능력지각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를 실

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표 13〉에 의하면, 부모-아동간 신념일치도의 높고 낮음과 아동의 연령에 따른 자기능력지각에 있어서 아동의 연령에 대한 주효과는 아버지-예측아버지, 아동-예측아버지에서만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아동의 신념일치도를 제외한 모든 신념일치도에 있어서 주효과는 있었다. 즉, 부모-아동간 신념일치도가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보다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있어서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아동의 연령과 부모-아동간 신념일 치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3〉 아동의 연령과 부모-아동간 신념일치도의 높고 낮음에 따른 자기능력지각 변량분석결과

신념일치도 구분	Source	df	MS	SS	F
(1) 어머니-아버지	연 령	1	459.83	459.83	2.930
	신념일치도	1	1180.28	1180.28	7.523**
	연령×일치도	1	241.21	241.21	1.537
	오 차	134	156.97	21033.43	
(2) 어머니-아동	연 령	1	317.52	317.52	2.06
	신념일치도	1	1779.22	1779.22	11.546***
	연령×일치도	1	26.771	26.77	.174
	오 차	134	154.10	20649.47	
(3) 아버지-아동	연 령	1	345.93	345.93	2.109
	신념일치도	1	476.97	2476.97	2.908
	연령×일치도	1	.17	.17	.001
	오 차	134	164.02	21978.32	
(4) 어머니-예측어머니	연 령	1	254.38	254.38	1.708
	신념일치도	1	2342.36	2342.36	15.724***
	연령×일치도	1	151.85	151.85	1.019
	오 차	134	148.97	19961.25	
(5) 아버지-예측아버지	연 령	1	649.72	649.72	4.206*
	신념일치도	1	1650.54	1650.54	10.685***
	연령×일치도	1	105.56	105.56	.683
	오 차	134	154.47	20699.37	
(6) 아동-예측어머니	연 령	1	545.38	545.38	3.561
	신념일치도	1	1846.94	1846.94	12.060***
	연령×일치도	1	87.06	87.06	.568
	오 차	134	153.15	20521.46	
(7) 아동-예측아버지	연 령	1	783.33	783.33	5.502*
	신념일치도	1	3077.51	3077.51	12.616***
	연령×일치도	1	300.42	300.42	2.110
	오 차	134	142.37	19077.54	
(8) 예측아버지-예측어머니	연 령	1	499.23	499.23	3.398
	신념일치도	1	2753.90	2753.90	18.745***
	연령×일치도	1	14.68	14.68	.100
	오 차	134	146.92	19686.88	
	전 체	137	167.11	22893.97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논의

1. 결 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에 앞서 얻어진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보기로 하겠다.

첫째, 다섯 가지 신념 중 아동자신의 신념이나 아동예측 부, 모의 신념이 부, 모의 신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미있는 발견을 할 수 있었다. 즉 아동은 실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동을 판단하는 시각보다 아동자신이나 아동자신에 대해 부모를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 더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어 호의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반면,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들 아동을 보는 시각에 있어 평가도가 낮았다. 특히 아동 자신의 신념이나 아동예측 어머니의 신념은 5학년 아동보다 2학년 아동에서 더 높게 나타나 이는 어릴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며 애착이 깊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다섯 가지 신념 중에서 어머니의 신념과 아동의 학업성취도만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 신념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은 국민학교 2학년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는 아동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보다도 어머니의 신념이 어떠한가에 따라 더 밀접한 관계를 보여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큰 것으로 증명되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신념들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아동의 신념 문제는 아동의 학업성취도 보다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더 큰 관계를 갖고 있었다.

셋째, 연령과 신념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른 학업성취도를 이원변량분석한 결과에서는 어머니의 신념점수에 따라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신념, 아동예

측 어머니신념, 그리고 아동예측 아버지신념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자신을 보는 긍정적인 신념이 높음에 따라 자기능력을 지각하는 수준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신념 일치도 유형의 경우 유사성에 해당 하는 신념 일치도 유형들이 다른 신념 일치도 유형들보다 신념의 일치도가 높았으며, 특히 8가지 신념 일치도 중 아동예측 어머니-아동예측 아버지 신념의 일치도가 가장 높았고(일치도 평균 백분율 56.00%), 아버지-어머니의 신념 일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일치도 평균 백분율 36.52%) 신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념의 일치도에서도 아동이 실제 어머니, 아버지의 신념보다도 부모의 신념 예측을 긍정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8가지 신념 일치도중 유사성 추측 유형에 속하는 세 가지 신념 일치도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이 어릴수록 즉 11세 아동보다 8세 아동이 어머니의 신념이나 아버지의 신념을 예측하는데 있어 아동자신의 신념과 비슷하게 예측하거나, 어머니의 신념과 아버지의 신념을 비슷하게 예측하였다.

다섯째, 8가지 신념 일치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에서는 아버지-어머니 일치도, 어머니-아동 일치도, 그리고 아동-예측 어머니 일치도에서만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았을 때 국민학교 5학년의 경우 8가지 신념 일치도와 학업성취도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반면 국민학교 2학년의 경우 4가지 신념 일치도와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연령이 어린 경우 신념일치도가 높을 때 학업성취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가지 신념 일치도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의 상관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일반적으로

로 8가지 신념 일치도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의 상관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연령과 신념 일치도의 높고 낮음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학업성취도의 경우 아버지-어머니의 신념에서만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아동의 신념과 연령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능력지각의 경우, 아버지-예측 아버지, 아동-예측 아버지 신념 일치도는 연령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아동의 신념 일치도를 제외한 다른 신념 일치도 유형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가 높고 낮음이 아동이 자기자신의 능력을 지각하는 정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2. 논 의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몇가지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부·모·아동의 신념은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관계가 크지 않는 반면에, 아동의 자기지각능력과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부·모·아동의 신념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영향을 주는 주요 매개변인으로서 가치가 입증되었지만, 아동의 인지적 행동에 해당하는 학업성취도에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 이유를 연구자는 Miller(1988)와 Hunt(1980)등의 신념에 대한 성질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 같다. 즉 이들은 신념이 아동의 발달과정에 관한 신념과 아동의 특정 능력에 관한 신념으로 구성되어 부모의 신념을 조사하였을 경우, 이 신념들은 비교적 아동의 인지적 행동에 원인적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채택한 가족신념면접 척도는

그 성질이 일반적인 가정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상황의 예측을 통해 신념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아동의 발달과정이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신념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신념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가 작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가지 이유는 Miller(1986)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대로 부모의 신념은 아동의 인지능력의 종류에 따라 그 차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열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부모의 신념은 Piaget식의 인지능력으로 조사하였을 경우가 일반적인 지능검사로 조사하였을 경우보다 더 관련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아동의 학업성취도 검사는 부모의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최적한 인지적 행동조사인가를 다시 한 번 숙고해 보아야 할 과제로 남는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부·모·아동의 신념은 학업성취도와 관계가 없었지만,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신념은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관계가 있고, 아버지의 신념은 국민학교 2학년 아동에게서만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모-아동간의 상호작용의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국민학교 아동의 경우 학교학습의 예습과 복습은 주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어머니의 신념이 아동의 학업성취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면, 아버지와 아동과의 상호작용은 고학년보다 저학년에서 더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임을 반영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아동의 신념과 학업성취도와의 연구는 앞으로 부모의 신념, 부모-아동의 상호작용의 질, 그리고 아동의 인지적 행동과의 역동적 맥락하에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가족신념면접 척도에 의해 얻어진 신념들에 의해 부모-아동간의 8가지 신념 일치도의 일치도 점수를 보면, 유사성 추측에 해당하는 신념 일치도 유형이 다른 신념 일치도 유형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Cashmore와 Goodnow (198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아동간의 신념 일치도 유형에 따라 아동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또한 연구자가 어떠한 신념 일치도 유형에 의해 아동행동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시사하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순히 부모-아동간의 신념 일치도보다 오히려 아동의 신념과 부모의 신념이 어떠한 것이라고 아동이 예측하는 신념이 보다 아동의 행동을 예언할 수 있는 준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부·모·아동의 신념과는 달리 부모-아동간의 신념 일치도는 세 가지의 신념 일치도(아버지-어머니, 어머니-아동, 아동-예측 어머니)에서 학업성취도와 차이가 났고, 연령과 신념 일치도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의 경우 어머니-아버지 신념 일치도에서만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기대가 부분적으로 수용되었지만, 역시 부모의 신념 자체보다 부모간, 부모-아동간의 신념 일치도가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더 주요한 변인임이 확인된 셈이다. 그리고 부모간, 부모-아동간의 신념 일치도는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모의 신념 일치도는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신념 일치도가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주는 것은 두 종속변인의 척도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에서 해석하여 보는 것도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가 되리라 본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신념 및 신념의 일치도를 독립변인으로 보고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자기능력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연구모형을 견지하여 왔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을 매개변인으로 하고 이 변인이 부·모·아동의 신념에 어떤 영향을 주며 또한 자기능력지각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연구모형에 따라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을 느꼈다.

참 고 문 헌

- 석정남. (1988). 자녀에 대한 가족간 신념의 일치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경숙. (1989). 아동발달과의 관계에서 본 부모의 신념체계에 관한 고찰. 동아대 대학원 논문집, 제14집, 55-68.
- 전경숙. (1989). 부모의 신념체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 동아논총, 제26집, 141-156.
- Allessandri, S. M., & Wozniak, R. M. (1987a). The child's awareness of parental beliefs concerning the child: A developmental study. Child Development, 58, 316-323.
- Alessmadri, S. M., & Wozniak, R. H. (1978b, April). The child's awareness of adult beliefs concerning the child: The effects of gender and subcultur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Baltimore.
- Alessandri, S. M., & Wozniak, R. H. (1987c, August). The child's awareness of parental beliefs concerning the child: A follow-up

-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York.
- Cashmore, J. A., & Goodnow, J. J. (1985). Agreement between generations: A two-process approach. Child Development, 56, 493-501.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unt, J. M., & Paraskevopoulos, J. (1980). Children's psychological development as a function of the inaccuracy of their mothers' knowledge of their abilitie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6, 285-298.
- McGillicuddy-De Lisi, A. V.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beliefs about development and family constellation, socioeconomic status, and parents' teaching strategies. In L. M. Laosa, & I. E. Sigel (Eds.), Families as learning environments for children (pp. 261-300). New York: Plenum Press.
- McGillicuddy-De Lisi, A. V.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pp. 7-24). Hillsdale, NJ: Erlbaum.
- Miller, S. A., White, N., & Delgado, M. (1979). Adult's conceptions of children's cognitive abilities. Merrill-Palmer Quarterly, 26, 135-151.
- Miller, S. A. (1986). Parents' beliefs about their children's cognitive abilit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276-284.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Miller, S. A., Man'ul, M., & Mee, L. L. (1991). Parental beliefs, parental accuracy, and children's cognitive performance: A search for causal rel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267-276.
- Sigel, I. E. (1979). Consciousness raising individual competence in problem solving. In M. W. Kent, & J. E. Rolf (Eds.),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Vol. 3):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Hanover, N. 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Sigel, I. E. (1981). Social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representational thought: Distancing theory. In I. E. Sigel, D. Brodzinsky, & R. Golinkoff (Eds.), New directions in Piagetian theory and practice.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igel, I. E., McGillicuddy-De Lisi, A. V., & Johnson, J. E. (1980). Parental distancing, beliefs, and children's representational competence within the family context (ETS RR-80-21). Princeton, N. J.: Educational Testing Service.
- Sigel, I. E. (1985). A conceptual analysis of beliefs.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pp. 345-371). Hillsdale, NJ: Erlbaum.
- Sigel, I. E., McGillicuddy-De Lisi, A. V., Flaughser, J., & Rock, D. A. (1983). Pa-

rent as teachers of their own learning disabled children(ETS RR-83-21). Princeton, N. J.: Educational Testing Service.

Stipek, D. J., & Iver, D. M. (1989). Developmental change in children's assessment of intellectu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60, 521-538.